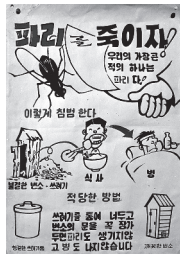


### 제3부 상처의 치료

### The Healing of Wounds



파리 잡기 포스터(UNCURK, 1952)



전염병 제어: 올름도 영상 (미국국립기록관리청, 1952)



남원지구 장터푸스 방역반 활동 (공보처,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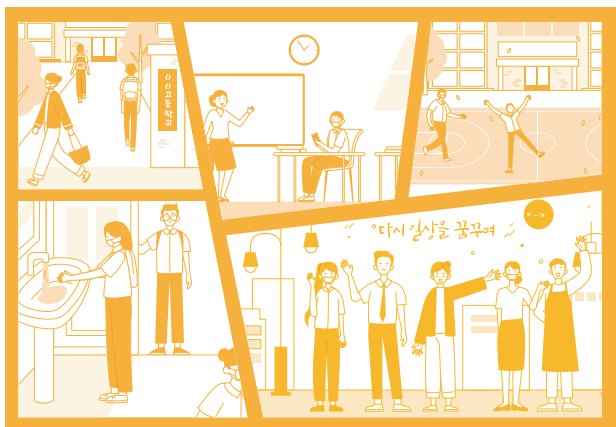


매동국민학교 어린이 예방접종 (공보처, 1979)

### 제4부 그리고 희망

### Newfound Hope

끝이 없을 것 같은 공황의 끝에는 다시 우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 일상은 과거와 달라졌지만 안전한 공생을 위한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 관람안내

전시시간 2021. 9. 2(목)-11. 7(일)  
전시장소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  
관람시간 10:00-18:00(주중·주말 동일) \* 입장마감 17:30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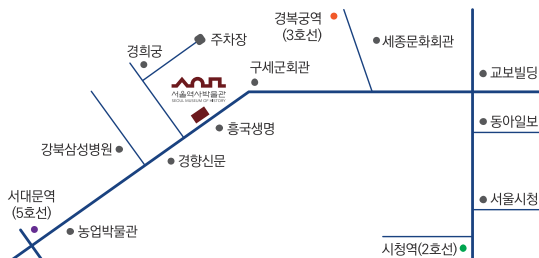
사전예약 수용인원 : 300명(회당 100명) \* 현장전시 200명  
관람시간 : 일3회(10시~12시 / 13시~15시 / 16시~18시)  
관람료 : 무료 \* 개인 접수(1인 4매)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1~2m) 준수  
- 입장시 손 세정제 소독  
- 체온측정(37.5℃ 미만 입장)  
- 출입자 신원확인 : 전자출입명부(QR코드) 혹은 수기접수

### 교통안내 및 전시문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7번 출구), 서대문역(4번 출구)  
간선버스 101, 160, 260, 271, 273, 370, 470, 600, 602, 702A서오릉, 702B용두초교, 705, 720, 721, 741, N26, N37(십야)  
지선버스 7019  
광역버스 9701, 9709, 9710, 2500  
공항버스 6002  
투어버스 광화문(동화면세점)  
전시문의 전시내용 : 031-750-2327  
사전예약 및 장소 : 02-724-0274~6

###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홈페이지 www.museum.seoul.go.kr



###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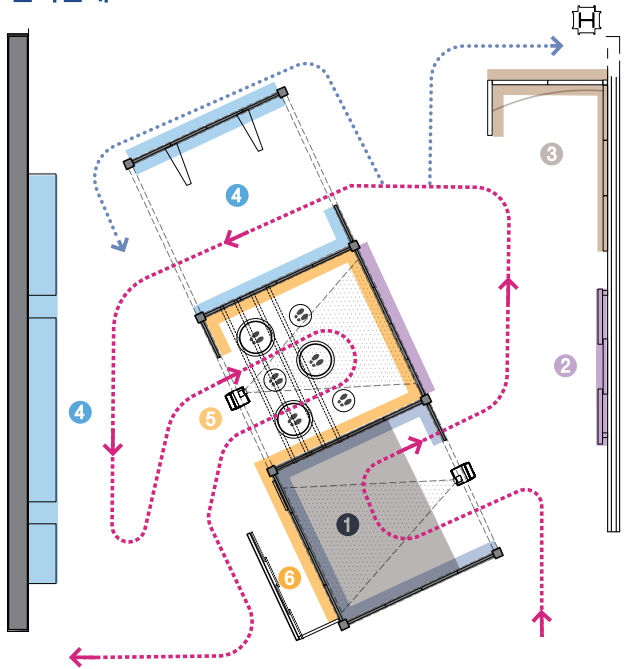


### 전시를 열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을 겪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과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은 같았을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손을 잡고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감염병을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함께 걸어갈 희망의 일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 국가기록원은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를 비롯하여 가치 있는 역사기록 등을 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전시안내



- ① PROLOGUE\_ 전시를 열며
  - ② 1부\_불안의 시작
  - ③ 2부\_좌절의 끝
  - ④ 3부\_상처의 치료
  - ⑤ 4부\_그리고 희망
  - ⑥ PHOTO\_ZONE\_ 포토존
- ..... 주요 관람동선  
 ..... 선택 관람동선

### 제1부 불안의 시작

The Rise of Apprehension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은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기, 쥐, 파리의 매개로 번지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마주 선 얼굴, 맞잡은 손, 소소한 대화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은 손님은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 배, 기차를 통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현종실록(1668.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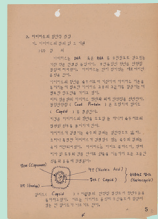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잇따라 죽었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경성의 5부에서 죽었다고 보고한 자가 9백여 인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뇌염예방에 힘씀시다

(제27회 차관회의록, 1957)

1957년 7월 10일에 개최한 제27회 차관회의의 보고사항 중에 '8월 중 국민반 실천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바이러스 연구(국방부, 1979)

'바이러스는 DNA 혹은 RNA를 유전정보로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전염성 물질이다. 바이러스가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지면 천연두, 홍역, 우두 등이 된다.'

### 제2부 좌절의 끝

The End of Despair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환자라는 낙인으로 비난의 대상이 고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모두에게 좌절의 끝을 보여 주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린 아이를 발견한 유엔 민간인 지원팀 (유엔수집, 1954)



콜레라를 막자 영상 (국립영화제작소, 1963)

### 제3부 상처의 치료

The Healing of Wounds

상처는 어루만져지고 아물어야 합니다. 의학으로 생활규칙으로 때론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찾아낸 최선의 방법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돌려줄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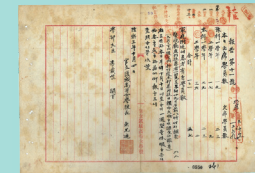
세종실록(1424.2.30.)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다 하니... 그들에게 향소산, 심신탕, 승마갈근탕, 소시호탕 등을 약재로 제작하게 하고 의학 생도들을 시켜서 병이 나는 대로 바로 진찰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또 그 근처의 무녀들을 시켜 무시로 출입하며 죽을 썬어 공급하게 하고, 항상 고찰하여 비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1915년 공진회창 위생과 자해구제부 안의 병균도표 (총독부, 1916)

전시장에는 결핵균, 디프테리아균, 나병균 등을 사진으로 전시하였다.



임시휴업보고:호열자때문에(한성고여) (총독부,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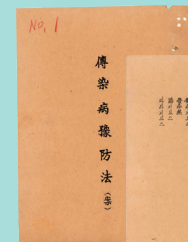
1909년 한성고등학교에서 콜레라(호열자) 발생에 따라 임시 휴업할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두창 예방 표어(총독부, 1923)

울산군에서 시행한 두창 예방 표어의 당선작이다

- 1등 : 죽을내, 얼을내, 종두를 할내
- 2등 : 백번 기도가 한번 종두만 못하다
- 3등 : 꿈보는 문명의 수치



전염병예방법(안)(국무총리비서실, 1952)

1952년 제25회 국무회의 인건으로 전염병예방법이 보고되었고 이후 1954년 동 법은 제정되어 1957년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